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더불어민주당이 악수를 뒀다. 당헌을 바꿔 가면서 속전속결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민주당 당헌(제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리를 비운 원인이 모두 성추문이었기 때문에 무공천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구차한 논리로 약속을 뒤집었다. 이런 민주당의 태도는 자기부정의 참 나쁜 정치다. 더욱이, 여성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2월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4월에 치러진 네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정

역사를 잊은 정당에 미래는 없다

치적 타결책으로 문 대표는 5월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김상곤 혁신위는 사무총장제 폐지,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 시 재보선 무공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등의 혁신안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2015년 10월 새누리당 소속 경남 고성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몰리자 열린 재보궐 선거 현장 유세에서 "새누리당이 책임져야죠,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고 말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불과 5년 전에 문 대통령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했던 '무공천 당헌'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것은 반개혁의 적폐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체질 개선을 위한 가칭 '2020 더 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런데 혁신위 구성 2주 만에 당헌을 바꿔 스스로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자랑했던 무공천 약속을 파기했다. 그리고서 더 이상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 국민 기만이고 우롱이다. 절저적 정당성에 기대어 당헌을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근간을 마음대로 흔들 수 있게 된다. 명분은 없고 탐욕만 취하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 마리 원숭이'에 빗대어 논 가린 문재인 대통령, 귀 막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입 닫은 이재명 경기 지사가 차례로 등장하는 만평을 게재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서울·부산 후보 공천 결정을 못 본 척하고, 이 대표가 비난 여론을 못 들은 척하며, 이재명 지사가 신뢰를 쌓을 목적으로 일부러 함구하고 있다는 것을 풍자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과 입만 열면 거짓 혁신을

외치는 위선의 대가는 즉시적이다. 한국 갤럽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 5월 1주 71%였지만 지금은 40%대로 추락했다. 최근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10월26~30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7.2%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낙연 대표(21.5%)와 이재명 지사(21.5%)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윤 총장은 전달 대비 6.7% 포인트 급상승하면서 범야권 1위 후보가 됐다. 당분간 대선 판세는 이낙연·이재명·윤석열 '빅3' 구도로 형성된 흐름이 유지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지지도 상승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차원적이다. 윤 총장 지지도는 추미에 장관과의 대립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여권과 확실히 각을 세우면서 급상승했다. 결국 윤 총장을 키운 것은 오만한 권력이다. 권력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윤 총장의 존재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선 경기장'에 들어와 트랙을 돌고 있는 이재명·이낙연과 비교해 아직 경기장에 들어오지도 않은 윤석열이 오차 범위 내에서 선두를 뒤흔고 있고, 이낙연·이재명의 지지도가 20% 안팎에 머무르는 정세 현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 여권엔 위기 상황이다. 특히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는 빨간불이 켜졌다.

유력 여권 대선주자들이 외연을 확장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권력과 전략적 차별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언컨대,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게 권력 논치만 보면 결코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종교칼럼

일심(一心)이 동(動)하면 정의(正義)가 되고

이 말씀의 뜻은 어떤 것일까? 만약 그 뜻이 '일이 있을 때는 그 일 하나하나에 대해 시비선악(是非善惡)을 잘 가려서 불의를 버리고 정의를 취하라'는 의미라면, 어떤 일에 있어서 정의와 불의를 쉽게 구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를 들자면, '정당한 일은 죽기로써 하며, 부당한 일은 죽기로써 말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과거 식민지 시대에 거의 모든 백성이 일제(日帝)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종했던 것은 불의인가 아닌가? 또 '남의 잘못을 보고 자기를 반성할 지언정 그 잘못을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는데, 남의 잘못을 숨겨서 좋은 것과 도리어 드러내야 좋은 것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지구 저편에 하루하루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음을 보면서도 내 자식 교육을 위해 돈을 아껴두고 쓰지 않는 것은 정의인가, 불의인가?

이처럼 세상일이란 이쪽저쪽을 살펴볼 때 옳은 것과 그른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때 우리는 어떻게 정의와 불의를 가려야 하는 것일까?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나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해답이다. 그런데 여기서 일심이란 '한 곳에 집중(集主)하는 마음' 곧 '성서적적(懺悔懺悔)한 마음'을 뜻한다. 때문에 일심을 바로 알지 못하면 무시선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이치로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되고, '잡념이 동하면' 불의가 되는 것일까? 사람이 만약 천만 가지로 얽힌 생각을 모두 쉬고 분별주착(分別住著)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성의 지혜가 솟아나서 어떤

경계를 만날지라도 육근이 바르게 작용하니, 이것이 우리 안에 깃든 공적(空寂)한 성품의 작용으로써, 이른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현상이다. 이러한 성품의 작용은 곧 우주 만유의 본원인 진리의 체성(體性)에서 나오는 묘용(妙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비선악에 초월하여 지극히 공정(公道)한 것이다. 그래서 '일심이 동하면 정의가 된다'고 한 것이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온갖 생각을 쉬지 못하여, 만나는 모든 경계마다 시비하는 마음과 분별 주착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비록 올바른 행위를 하게 된다 할 지라도 그 '옳음'에 집착하여 제가 지은 공덕에 대한 상(相)을 놓지 못해서 참다운 정행(正行)이 되지 못하고, 혹여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그 '선'에 집착하고 선한 공덕에 대한 상을 버리지 못하여 참다운 선행(善行)이 되지 못하니, 이는 스스로 아만(我慢)을 더하여 참다운 공덕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떤 경계에서든 오직 위와 같이 천만 가지 생각을 쉬고 분별 주착을 내려놓은 채 사물을 보아, 그 떠오르는 공적영지으로써 일을 하는 것이 곧 참된 '정의의 실현'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금강경'에 있는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곧 응당 텅 빈 마음이 되었다가 경계 따라 그 마음을 작용하라"는 법문도 위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살아갈수록 생각할 것도 많고 시간이 갈수록 판단할 것도 많은 이때에 일심으로 정의를 양성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공의 열쇠

대한 감사를 찾는 과정은 또 다른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지지 못한 불만보다는 가지고 있는 소중함에 감사를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른 삶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선 하루에 최고 10만 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유럽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은 하루 2만여 건에 이르는 확진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최근 일 평균 확진자가 4만 건에 달하여 전역에 봉쇄령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다른 여러 유럽 국가도 봉쇄령을 이미 검토 중이거나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국가와 비교하면 성숙된 공중체 의식을 가지고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최근 모임이나 집단 시설 속에서의 확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물론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단계에 따라 많은 불편함과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구성원도 제법 많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들이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확실적인 조치에 무조건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과 함께 경제 상황과 방역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7일부터 시행이 된다. 기존의 3단계 방식에서 보다 정밀해지고 보

다 유연해진 5단계 방식이다. 이렇게 좀 더 유연해진 거리 두기 방식에 전문가들은 긍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장단기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방역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다가오는 겨울철 유연해진 거리 두기 단계가 전국적 확산 차단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종교 시설, 요양원, 클럽 등의 다중 이용 시설 등을 통한 대규모 확산이 소중한 생명과 우리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엄격하고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은 단시간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멀리 내다보고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 이러한 길을 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방역 전문가, 국가 기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다. 성숙된 국민 의식이 있었기에 불편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일상이 허락되어 있는 지금이다.

현재 누리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속 일상에 감사할 요소들을 '감사 일기'는 아니더라도 한번 적어 보았으면 한다. 방역 수칙만 지킨다면 모임도 가능하고, 행사도 가능하다. 스포츠도 관람할 수 있고 학교도 갈 수 있고 종교 활동도 가능하다. 현재 누리고 있는 소중한 일상의 감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함께 지켜 나가는 마음가짐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나아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외지 투기 세력으로 인한 서민 피해 없도록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8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특히 북선동과 수완동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의 확산 조짐도 보인다.

광주 북선동과 수완동 등 인기 지역에 선 몇 달 사이 1억 원가량이나 급등한 아파트도 있다.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거래량까지 늘고 있어 몇몇 아파트에 한정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한 달 평균 53.7건이던 북선동 아파트 매매 건수는 5개월 동안 110.2건으로 105.2% 늘었고 같은 기간 수완동 아파트 거래량도 183.8%나 폭증했다.

아파트 거래의 80%는 겹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외지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광주의 전세수급지수가 9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96.1을 기록했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200에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광주는 전통적으로 전세가을(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곳이다. 전세수급지수가 올라가면서 전세가을도 전국 평균(65%)보다 9%포인트나 높은 74%에 육박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뛰고 전세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면 실수요자인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더구나 외지 투기 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 지역 부동산 시장 평균 53.7건이던 북선동 아파트 매매 건수는 5개월 동안 110.2건으로 105.2% 늘었고 같은 기간 수완동 아파트 거래량도 183.8%나 폭증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있지만 막대한 유동성으로 인해 현장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공급 시스템 마련 등 보다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구간 경제조정 소지역주의 내려놓고 타협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5개 자치구 간 경제조정 현안이 지역 갈등 양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산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주민은 "광산구 첨단1·2동의 복구 편입을 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는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광주시의 구간 경제조정 절차에도 혼선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광산을지역위원회는 오는 8일 첨단 쌍암공원에서 광산구 첨단1·2동을 복구로 편입하는 광주시의 구간 경제조정 2안(중폭)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 물론 이번 지역위원회 차원의 민의 파악은 광주시가 공식 진행하는 주민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조정 에 대한 대표 의견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많으면 광주시가 마련한 2안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향후 제시하는 최종안에 질 조정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광산 지역 국회의원과 일부 주민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동의 여부에 서명부터 하라는 식'이라며 회신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자치구 간 경제조정은 주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구도심 공동화가 가중되는 등 5개 자치구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는 데 이견은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자치구 간 경제조정은 지난 2018년 한 차례 무산됐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구간 경제조정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및 주민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으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열정의 그라운드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올 시즌 KBO리그 타격왕에 오른 KIA 타이거즈 최형우는 37세의 베테랑이다. 522타수 185안타 타율 3할5푼4리를 기록하며 롯데 손아섭(3할5푼2리)과 kt 로하스(3할4푼9리)의 막판 추격을 따돌렸다. 그는 특히 시즌 막판 몰아치기로 타이틀을 따낸 뒤 "그저 신기하다. 내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다"며 스스로 놀라워하기도 했다.

최형우보다 한 살 위인 추신수는 현재 메이저리그 선수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나이가 많은 추신수에 대해 미국

전북의 8회 우승을 이끈 뒤 은퇴했다. 올해 나이 41세. K리그 통산 548경기에 출전해 228골을 기록, 압도적인 차이로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동국보다 나이가 많은 현역 선수로는 이탈리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잔루이지 부폰 골키퍼가 있다. 올해 나이 42세로 아돌 포라티의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최고의 기량을 과시, 올해 발롱도르 드림팀 후보에 뽑히기도 했다. 이탈리아 세리아A에서는 39세의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가 6라운드 현재 4경기 7골을 기록하며 득점

내 나이가 어때서

베테랑을 넘어 노장 언론은 "30대 후반이지만 더 뿔 능력이 있다"면서 "1년에 3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ML 최고령 선수인 알버트 푸홀스로 추신수보다는 두 살이 많다. 역대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푸홀스는 4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LA 에인절스의 주전선수로 뛰고 있다.

축구에서도 노장들의 투혼은 항상 화제가 된다. K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불리는 '라이언 킹' 이동국은 지난 1일

치기 6라운드 현재 4경기 7골을 기록하며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베테랑을 넘어 노장 언론은 "30대 후반이지만 더 뿔 능력이 있다"면서 "1년에 3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ML 최고령 선수인 알버트 푸홀스로 추신수보다는 두 살이 많다. 역대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푸홀스는 4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LA 에인절스의 주전선수로 뛰고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양승진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작년 이맘때 청명한 하늘이 보이는 카페에 앉아 주말 오후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책을 보던 생각이 문득 난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 있어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서로의 일상을 즐기던 우리가 지금은 체온을 확인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며 띄엄띄엄 앉아야만 한다.

그렇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보내왔던 그동안의 일상은 '감사'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시정론 1위 토크쇼의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언급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문득 스쳐간다. 그녀는 '감사'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매일 일상의 감사를 적는 '감사 일기'를 소개했다.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 중 감사한 다섯 가지를 적어보는 비교적 쉬운 방법이다. 주로 적히는 것들은 대단한 것들이 아닌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오늘도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준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것 등이 주된 소재가 된다. 이러한 일상에